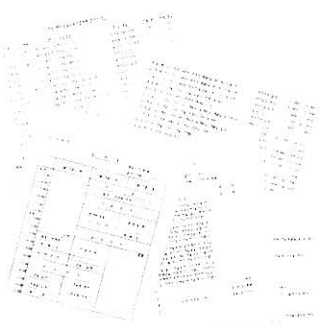
#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창립총회 기록물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이 말은 영화 메멘토의 주제어이기도 했고, 어느 카메라 회사의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글(카피)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억은 남겨 둔 기록이나 사진 또는 영상 기록물이 없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이 지상에서, 역사의 장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전혀 허구의 사실일지라도 기록이 있다면, 허구임을 증언하는 기록물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허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이자 횡포이며 그리고 어쩌면 역사에서 숱하게 되풀이되는 역설입니다.

때문에 역사는 거의 대부분 강자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다는 한탄의 소리를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기록 또한 이같은 한탄의 소리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독립운동과 친일파에 대한 왜곡과 지난 시기 독재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틀린 역사 기록이 단적인 실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잘못된 기록이 잘못된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모든 국민과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왜곡의 역사를 배격하고 사실 그대로의 기억과 기록, 진실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삶과 사회의 거울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로 사료관에서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기록일지라도 역사에서는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없는 한 사람의 일기 한 권이, 편지 한 통이 그 시대를 증거하는 가장 생생한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료는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창립총회 기록물입니다. '상록회'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와이교협은 오늘날 전교조의 씨앗이 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1980년 5.17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 온 분야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동토의 땅에서 조심스럽게 교육민주화의 싹을 틔우던 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 독재정권 아래에서 교육이란 일제 식민지 교육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육분야에서 친일 관료들이 그대로 해방 후의 교육관료로 군림하게 되었고, 게다가 수많은 학교가 친일파들의 도피처로 세워진 역사적 정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군복(교련복)을 입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한 여름의 뙤약볕 아래서도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픽픽 쓰러져 양호실 신세를 져야 했으며 일제의 황국서사를 그대로 베낀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워야만 했습니다.

교사로서 이런 비민주적 교육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교육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지식전달자나 월급쟁이로 자신을 가두어 놓으려 하는 현실의 벽에 필연적

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같은 감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어찌보면 가시밭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981년 2월 24일~26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YMCA(총무 강문규) 주관 '청소년사업정책협의회' 에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1981년 8월 6~8일에는 전국에서 31명의 교사들이 모여 'YMCA중등교육자연구협의회' 를 발족시키면서 학교 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교육자상의 정립을 기본 과제로 설정하고 교사들의 동지적 공동체 운동을 준비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2년 1월 5~7일 서울 다락원에서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회장 오장은)가 창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명 상록회로 불린 와이교사회는 어떤 모임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아야만 했던 당시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인 민주적 교사운동 단체로서 학교 현장과 지역에서 수많은 소모임 형성의 매개고리 역할을 했으며 참교육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상록회에 참여했던 교사들 대부분이 나중에 전교조 출범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이 상록회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12-7-71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회칙(초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Secondary school Teachers' Council of the YMCAs of Korea)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 YMCA 연맹 안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중등교육자들간에 기독교 정신과 YMCA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교류와 우애를 돈독히하며 올바른 교육자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문제를 기본과제로 삼아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자들의 공동체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가 입

제 4조 (기준) 본회에의가입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는 지방회를 기본단위로 한다.

제 5조 (가입절차) 본회에의 가입은 소정의 가입원과 회비를 납부하고 입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지방회) 1.지방회는 제4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칙에 본회의 목적(제3조)을 명시해야 한다.
2. 지방회의 대표는 대의원회시 대의원이 되며 본회의 지방연락 책임을 맡는다.

제 7조 (지역협의회) 지방회들은 지역단위(영남, 호남, 중부지역)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회 부회장이 그 대표가 된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8일 광주에 살고 계신 윤영규 선생님의 기증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시 다락원에서 있었던 모임의 발제문과 안내문, 일정표, 참가자 명단 등 세세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편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창립된 광주 와이교사회 자료까지 덧붙여 있어 교육운동사의 귀중한 사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영규 선생님은 4.19 당시의 대학생수습원 완장에서부터 씨알의 소리 등 잡지와 재야운동, 교육운동 관련 자료, 기타 최근의 자료까지 무려 33박스에 이르는 온갖 역사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자료 수집과 정리는 자신의 삶을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와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긍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영규선생님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광주항쟁 당시 지도적인 인사로 활동하셨고 상록회 창설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 위원장과 광주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신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십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쌓아 놓았던 한국 현대사의 곰팡내와 무게를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소중한 자료를 내놓으신 윤영규 선생님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